

尹 “정부 맡겨주면 김정은 버르장머리 정신 확 들게 할 것”

“이북에서 미사일 9번 썩도 말 못하는 정권” “언론인 각성해야... 거짓공작으로 국민 세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6일 “국민들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그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쓰는 거다. 제게 정부를 맡겨 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의정부시 아트박스 의정부점 앞 현장유세에서 “저 이북에서 미사일을 9번 썩는데도 도발이라는 말을 한 번 못하는 정권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리 대한민국 언론인들도 각성

해야 된다. 이게 뭔가 도대체”라고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이것도 정치개혁에 앞서 먼저 뜯어고쳐야 된다. 말도 안 되는 허위보도를 일삼고, 국민 속이고, 거짓공작으로 세뇌해 왔다”며 “이게 민주주의의 맛이다. 그러니까 이제 명 후보 본인도 군사독재와 별반 다르지 않고 이 나라가 위기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년 전에 다량제 하겠다고 우리 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의당하고 손잡더니 어

떻게 했다. 위성 정당 만들어서 심상정 대표의 정의당 뒤통수 쳤다”며 “이런 사람들이 그 5년의 긴 세월 놔두고 대통령 선거 열흘 앞두고 (정치개혁)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우리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이런거 속지 않죠? 정말 뻔뻔하고 아주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다. 욕이 절로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확진자 투표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인 선관위가 맞냐”라며 “아무리 썩어도 사법부 언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을 지키고 살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금니 꼭 깨물고 갈아치워야 된다. 9일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셔야 바꿀 수 있다”고 호소했다.

김재환기자



안철수 “더 좋은 대한민국·강한 나라 안전한 나라 윤석열과 내가 만들겠다”



안 대표는 “더 좋은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좋은 나라, 강한 나라,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한다”며 “북한로부터 안전하고,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노후생활도 안전한 나라가 윤 후보와 내가 꿈꾸는 더 좋은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권 들어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나”라며 “상인들은 장사하지 못하고 청년들은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북한은 수시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외교는 역대정권 최악이다. 이걸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기를 자초한 정권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것이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단일화를 이루고 대선후보에서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대구에서 “윤 후보와 제가 꿈꾸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시 달성군 화원시장 앞에서 열린 윤석열 후보 대구선대위 유세에서 “윤 후보의 상식과 공정, 안철수의 미래와 국민통합이 합치면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권교체할 주역 윤석열 후보를 다섯번만 연호하자”고 유도해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한편 유시장에 함께 등장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구시민이 있었기에 국민의힘이 있었고 이제 정권교체를 꿈꿀 수 있고 헌법가치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며 “3월9일은 정의가 불의를, 상식이 불상식을, 공정이 불공정을 승리하는 날”이라고 외쳤다.

최이슬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정치 풍향계 ‘순천’ 표심지키기 나서

송 대표, “李, 74년의 피맺힌 한을 완전히 해결할 후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오후 2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승남 전남도당 대선 상임위원장 등 주요인사들과 여순항쟁 위령탑을 방문해 참배하고, 순천연향동 패션의 거리로 이동하여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결집을 호소하는 집중 유세에 나섰다

송대표는 여순항쟁 위령탑을 참배하며, “이재명 후보는 제주4.3사건에 대해서도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여순사건 74년의 피맺힌 한을 이해하고 완전히 해결할 후보 역시 이재명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천 연향동 패션의 거리로 이동한 송대표는 소병철 의원, 김승남 위원장과 순천시민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유세차에 올라, “새벽에 기습적으로 한 윤·안 단일화는 ‘자리 나눠먹기식’ 기득권 야합과 ‘국민 배신’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런 반칙·구태정치를 일삼는 윤석열·안철수 기득권 카르텔 야합을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시라”고 호소했다.

김승남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 또 철수할 줄 알았다. 새벽 2시에 기습 야합하는 것은 국민

을 속이는 것”이라고 밝히며 “순천에서 투표율을 올려주셔서 9일 이재명 승리를 견인해달라”고 강력히 외쳤다. 이어진 연설에서 송 의원은,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성인지예산 삭감해서 국방비 증액 주장하며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후보가 대통령되면 우리 젊은이들,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한다. 이번에 대통령 잘못 뽑으면 5년 내에 전쟁 위협에 놓인다”고 일갈하며, “전쟁 없이 평화를 지켜줄 것을 약속한 후보는 오직 이재명”이라고 절절히 지지를 호소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이낙연, ‘부정 소지 없다’ 선관위에 “이걸 해명으로 볼 수 있나”

“제가 알던 선관위는 이렇지 않았는데, 어디가 고장난 것입니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선대위원장은 6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전투표 관리에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오늘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과를 하셔야 옳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2년 대한민국 선관위 맞느냐. 최고의 역할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선관위가 맞느냐”며 이같이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 관리의 잘못됐다”며 “아프신 분들을 오래 대기하시게 하고 종이상자나 사무용 봉투, 심지어 쓰레기 봉투에 투표용지를 담아 옮기기도 했다. 기표지를 비닐봉투에 넣도록 했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선관위는 정리된 해명도 사과도 없다. 선관위원장은 보이지도 않는다”며 “확진자와 격리자가 급증해 어려움이 있었

지만 그건 누구나 알고 있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사전투표 관리의 잘못을 어떻게 개선할지도 밝혀달라”며 “선관위의 명예와 신뢰가 빨리 회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는 선관위 해명 이후 페이스북에 “선관위, 이게 됩니까?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대한 입장표명도 왜 이리 불성실합니까”라고 거듭 질타했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